디지털 장서개발정책 기본요소 연구*

A Research on the Elements of Digita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장 덕 현(D. H. Chang)**
서 태 설(Tae-Sul Seo)***

〈 목 차 〉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Ⅱ. 디지털장서개발정책의 의의
1. 장서개발정책 가이드라인
2. 국내외 디지털장서개발정책 개발 사례
Ⅲ. 장서의 수집대상과 범위 분석
1. 이용자 커뮤니티
2. 디지털 포맷의 유형
3. 디지털 매체의 선정 기준
Ⅳ. 장서수집 수준 정의
1. 컨스펙터스
2. 컨스펙터스 수정
Ⅴ. 디지털장서개발정책 구성요소
1. 구성요소 도출
2. 디지털장서개발정책 기본 구성요소
Ⅵ. 결 론

초 록

장서개발정책은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 있어서의 장서개발의 특징과 범주, 우선순위 등을 규정하는 장서관리 업무의 마스터플랜이다. 도서관은 장서개발정책을 통하여 수집대상 장서의 범위, 수집의 우선순위 및 구입 수준 등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단위 디지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의 전단계로서 국립디지털도서관의 디지털장서개발정책 기본모형을 연구하여, 국가적 디지털장서개발정책의 필수 요소들을 도출하고 향후 디지털장서개발정책의 일반적 지침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의 전자자원개발정책 사례들을 조사·분석하여 국가단위 디지털도서관에 적합한 독립형 장서개발정책의 설정을 제안하고, 국가단위 디지털도서관이 수집 대상으로 하는 정보자원의 유형과 범위, 수집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구입 수준, 라이선스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한 원칙과 국가적 디지털 정보자원 개발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필수요소들을 도출하였다.

키워드: 장서개발, 장서관리, 장서개발정책, 전자자원

ABSTRACT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CDP) is the master plan for managing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through which the features and categories of collections are defined and sorted. The National Digital Library therefore needs to determine its manifest principles based on CDP regarding the magnitude of acquisition, the acquisition priority and the magnitude of purchases. This paper pertains to the principal model for ND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as a primer for establishing ND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in order to illustrate essential elements of nationa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and provide general guidelines for ND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To propose an independent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appropriate for NDL by analyzing cases in digital resource development policies. To guide establishing principles for determining the types and magnitude of NDL collection acquisition, prioritizing acquisition, making decisions on purchase magnitude and licensing. To identify the essential elements in systematic development of national digital information resources; and to propose a model for NDL's CDP accordingly.

Keywords: Collection Development, Collection Management,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Electronic Resource

* 이 논문은 국립디지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기본모형연구 보고서를 요약·보완한 것임.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dchang@pusan.ac.kr)(제1저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정보유통본부 책임연구원(tsseo@kisti.re.kr)(공동저자)
• 접수일: 2009년 8월 23일 • 최초심사일: 2009년 8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9년 9월 21일

www.kci.go.kr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장서개발정책(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 CDP)은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 있어서의 장서개발의 특징과 범주, 우선순위 등을 규정하는 장서관리 업무의 마스터플랜이다. 장서개발정책을 통하여 도서관 및 정보센터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장서의 특성과 강점 및 약점을 파악하고 장서구성(collection building)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예산분배(allocation)의 정통성과 효율을 기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간의 협력을 진작하며, 도서관 조직 내부와 도서관 외부 커뮤니티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고, 지적 자유 보호와 검열 등에 관한 도서관의 입장을 천명한다.

각 관종의 도서관들이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수집대상 장서의 범위, 수집의 우선순위 및 구입 수준(magnitude) 등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자명하지만, 특히 국가도서관의 경우 그 책임과 영향은 지대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최근에 개관한 국립디지털도서관(National Digital Library : NDL)의 디지털장서개발정책 수립의 전단계로서 장서개발정책의 기본 요소들을 일별하여, 국가적 디지털장서개발정책의 필수 요소들을 도출하고 향후 국가단위 디지털장서개발정책의 일반적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국가도서관들은 오랜 세월동안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장서개발정책에 입각하여 국가차원의 장서개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도서관뿐만 아니라 각급의 연구도서관과 공공도서관들이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자원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전자자원에 대한 장서개발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존의 인쇄형 장서개발정책에 전자자원개발정책을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혹은 별도의 독립된 전자자원(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은 납본관련 법제와 '자료수집원칙', '구입자료선정기준'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일관된 장서개발정책이 미비하여 장서개발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디지털도서관은 기존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장서개발정책을 입안, 제도화하고 적용하고 이를 각급 디지털도서관에 확대하기 위한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국립디지털도서관의 디지털장서개발 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기본 요건들을 도출하는 과정을 기술함으로써 다른 도서관들이 디지털 장서개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www.kci.go.kr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외의 디지털 장서개발정책 사례들을 조사·분석하여 국가단위 디지털 도서관에 적합한 독립된 디지털 장서개발정책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국가단위 디지털도서관이 수집 대상으로 하는 정보자원의 유형과 범위, 수집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구입 수준, 라이선스, 벤더 등에 관한 내용, 그리고 컨소시엄 관련 사항에 대한 원칙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고려사항들을 일별하였다. 기존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은 자료수집에 관한 일반적 지침 이외의 도구가 미비하여 컨스펙터스(Conspectus)와 같이 주제분야에 대한 설명과 수집단계를 제시하는 도구가 없으므로, 기존의 5단계로 구분하는 컨스펙터스의 장서수준(Collection Magnitude)를 국가차원의 디지털장서개발에 맞게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적 디지털 정보자원 개발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필수요소들을 도출하였다.

Ⅱ. 디지털장서개발정책의 의의

1. 장서개발정책 가이드라인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ALA)는 산하 RUSA(Reference and User Services Association)의 장서개발 및 평가섹션(CODES : Collection Development and Evaluation Section)을 통하여 전자자원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핵심 요소(Core Elements of Electronic Resource Collection Policies)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1)]

- 용어 정의
- 정책 개정에 대한 일정
- 전반적인 도서관 정책과의 관계
- 인쇄 자원과 기타 전자 자원과의 관계 : 현재 자원의 대체 또는 보강
- 선정 : 선정의 주체
- 정보의 기준 : 범위, 정확성/최신성
- 하드웨어 고려사항 : 산업 표준 준수, 설명서와 기타 기술적 지원
- 소프트웨어 : 산업 표준 준수, 설명서와 기타 기술적 지원
- 비용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보수 계약에 대한 자금 편성 및 조정

1) ALA Core Elements of Electronic Resource Collection Policies, 〈http://www.ala.org/ala/rusa/rusa ourassoc/rusasections/codes/codessection/codescomm/colldevpolicies/coreelements/core.htm〉 [cited 2009. 5. 24].

www.kci.go.kr

• 직원 : 부서별/기관별/컨소시엄 책임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2. 국내외 디지털장서개발정책 개발 사례

가. Library of Congress[2)]

2004년 제정된 LC의 디지털 장서개발정책의 골자는 아래와 같다.

(1) 소개 : 수집 범주에 대한 소개

(2) 정의 :

- Electronic resource : 컴퓨터의 이용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입력된 저작. 원격 접근과 직접 접근에 의해 이용 가능한 전자 데이터를 포함한다.
- Acquire : 도서관이 공식적인 계약, 라이선스, 기타 동의를 통해 접근을 제공하거나, 수집 절차를 통해 받는 전자자원, 원격 혹은 직접 접근을 의미한다.
- Collect : 도서관에 의해 소장되고 영구적인 장서로 선정된 전자자원. 도서관이 영구적인 소장 권리를 가진 다른 곳에 저장된 자원도 포함한다.
- Link : 도서관의 웹자원이나 원격접근 데이터에 대한 서지 레코드로부터의 지시자이다.
- Archive : 도서관에 의해 혹은 도서관의 이익을 위해 관리되는 영구적 디지털 레포지토리를 유지하기 위해 처리하는 것이다.

(3) 일반적 가이드라인 : 아래 기준에 의거 높은 순위를 차지한 전자자원 수집 :

- 의회와 연구자의 현재나 미래의 정보 요구에 부합하는 유용성
- 정보 제공자의 명성
- 제공되는 정보의 유일성
- 학술적 내용
- 디지털 형태로만 이용 가능한 내용
- 위험성
- 회색/지하 문헌과 같이 일시적인 자원전자자원 수집기준 명시

(4) 구체적 가이드라인 :

- 기본적 내용과 부가적 가치
- 접근성 : 서버의 안정성, 멀티미디어의 적절한 이용, 저작권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등록이 요구될 경우 프라이버시 보호, 플러그인 소프트웨어를 위한 소스의 링크 제공

2) LC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http://www.loc.gov/acq/devpolelectronicselectionguidelines.html〉; Digitazation Policy, 〈http://www.loc.gov/preserv/prd/presdig/presintro.html〉 [cited 2009. 5. 24].

www.kci.go.kr

- 이용자 인터페이스, 내비게이션 : 내비게이션의 구조와 용이성, 검색, 도움말 기능, 사이트 맵의 존재, 디자인 요소들, 이용을 촉진하는 상호작용 기능
- 표준 : 일반적인 기술 표준과 컴퓨터 사양 준수

(5) 보존정책 :

- 도서관에 의해 생산된 다른 버전이 존재하지 않는 자원
  예 : American Memory, web archives, Portals to the World, 등
- 도서관에 의해 변환된 자원의 디지털 재생산물
- 도서관에 의해 수집된 유일한 전자자원
- 부가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원
- 전자 형태로만 존재하는 자원
- 컴퓨터 프로그램

나. The British Library[3)]

BL의 디지털 장서개발정책은 컬렉션별 장서개발정책, 납본에 의한 디지털 보존 정책, 그리고 디지털화(digitasation)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BL이 제공하는 컬렉션은 Americas/ Asia, Pacific & Africa/ East European/ Modern British/ Modern Irish/ West European/ Early printed/ Manuscript/ Maps/ Music/ Newspapers/ Patents, trademarks and designs/ Reports, conferences and theses/ Philatelic/ Science technology & business/ Sound archive/ Research resources 로 나누어져 있다.

다.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4)]

호주국립도서관(NLA)의 전자자원개발정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정의 :

- Physical format electronic resources : 물리적 매체로 출판된 아날로그 전자자원(e.g. cassette tape, video)과 디지털 전자자원(e.g. floppy disks, CD-ROM, DVD, VCD) 모두를 포함한다.
- Online resources : WWW로 출판되거나 이메일 등에 의해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는 디지털 자원. 온라인자원은 '출판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무료이든 유료이든, 웹에서 공공연히 이용 가능하다면, 이 정책의 범위 내에서도 그렇게 인정한다. 기관이나 조직 업무 과

3) Collection List, 〈http://www.bl.uk/collections/listings.html〉 [cited 2009. 5. 20].
4) NL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http://www.nla.gov.au/policy/cdp/chapter_4.html〉 [cited 2009.5.25].

www.kci.go.kr

정에서 내부적 이용을 위해 생산된 온라인 문서는 '기관 기록물'로 간주되며 컬렉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그 외의 디지털 형태(디지털 이미지, e-mail 컬렉션, 음원 등)로 생산된 자원은 본 정책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범주 내에 있는 것이 수집된다.

(2) 수집 :

- 물리적 포맷

CD-ROM, DVD, 플로피 디스크를 포함하는 포맷으로 납본을 통해 선택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출판사와 생산자와 협의하며, 납본으로 수집되어질 수 없거나, 다수의 사본이 요구될 경우 구매를 고려한다. Acquisition Guidelines for Australian Physical Format Electronic Publications(www.nla.gov.au/policy/acqguide.html)에 정해진 선정 기준을 따르며 출판물이 인쇄와 물리적 포맷 전자 버전 모두 존재하는 경우, 인쇄버전을 수집한다. 출판물의 온라인과 물리적 포맷 전자 버전이 모두 이용 가능한 경우, 온라인 버전을 수집한다. 버전 간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두 가지 또는 모두 수집한다.

- 온라인 자원

웹아카이브인 PANDORA에서 선정된 온라인 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한다. 출판사의 웹사이트로부터 온라인 출판물을 복사하고 아카이브에 사본을 배치하며 Guidelines for the Selection of Online Australian Publications Intended for Preservation(pandora.nla.gov.au/selectionguidelines.html)에 따라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정확히 동등한 인쇄물이 있는 경우 온라인 자원을 수집하지 않고, 인쇄물을 수집한다.

- 디지털화된 자원

사진, 지도, 악보, 구술기록, 민간전승기록, 자관의 컬렉션으로부터 선정된 원고와 신문에 대한 영구 디지털 사본 등으로 이들은 도서관의 목록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지고, 목록, 저장됨. 디지털화 프로그램의 내용은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선정은 도서관의 디지털화 정책(www.nla.gov.au/policy/digitisation.html)을 따른다.

라. National Science Digital Library[5)]

미국 NSDL은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분야의 공유기반 디지털 장서를 구축하고 있으며 장서개발정책에서 NSDL의 미션, 장서에 대한 소개, 주제범위, 대상 이용자 집단, 선정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즉, NSDL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관점 및 수준의 과학, 공학, 기술, 수학, 의학적 정보를 수집한다. 이것은 학제

5) NSD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http://nsdl.org/about/?pager=collection_policy〉 [cited 2009.5.24].

www.kci.go.kr

적인 교육과 연구 분야, 학문간 경계에 있거나 STEM영역에 부가되는 사회과학 영역 주제를 포함한다. 또한 미취학 아동부터 독립적 학습이 가능한 성인까지, 공식/비공식적인 교육 환경에 놓여있는 이용자의 다양하고 넓은 교육적 정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다.

현재 NSDL은 디지털도서관 컬렉션의 집합으로서 다른 특정 컬렉션으로부터 수집된 것들이다. 따라서 모든 자원은 관련 조직체계나 NSDL이 자금을 지원한 프로젝트와 정부의 예산이 지원된 컬렉션, 그리고 대학, 기업, 그리고 NSDL의 범위 주제에 맞는 다른 조직이 제작한 컬렉션에 관한 정보와 연관되도록 되어 있으며 NSDL 장서개발팀(Core Integration Team)에 의해 선택된다.

마. National Library of Medicine[6)]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LM)의 장서개발정책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소개 : 건강, 의학, 생물학 지식에 관한 전문 문헌을 형식에 구애 없이 수집, 보존한다.

(2) 용어의 정의 :

- Acquired. 도서관이 공식적인 취득과정 혹은 라이선스 계약이나 기타 공식 협약을 통해 입수한 온라인 혹은 물리적 형태의 전자자원이다.
- Collected. 도서관에 의해 소유, 창조되거나 저장되는 것과 영구적인 장서로 채택됨을 의미함. 도서관이 영구적인 소유권한을 가진다.
- Electronic resources. 컴퓨터나 온라인, 물리적 형태로 인코딩되거나 만들어진 저작. 전자 저널, monographs, reports, articles,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collection, still과 동영상, 음악, 그리고 interactive resource를 포함한다.
- Link. 도서관의 웹 자원과 서지적 기록부터 전자자원의 포인터이다.
- Online-only resources. 처음부터 디지털로 생산되었거나 물리적 매체 또는 프린트되어 있지 않은 저작을 의미한다.
- Physical media. 실체가 있는 매체이다.

(3) 전자장서 수집범주와 수집방법, 주제범위에 대한 명시 :

- PubMed Central에 보관된 journal literature
- NCBI Bookshelf에서 출판된 책들
- 데이터베이스와 출판물을 포함하는 전자출판물(NLM 수집개발 매뉴얼), 기술 보고서, fact sheets, 그리고 NLM 생산 저작
- 인쇄본 연구결과의 디지털 장서, 도서관이 디지털화 하여 보관중인 자료들
- 신뢰할만한 학술 레포지토리에 있는 온라인 자원

6) NLM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http://www.nlm.nih.gov/tsd/acquisitions/cdm/formats20.html#1038861〉 [cited 2009. 5. 30].

www.kci.go.kr

- 도서관이 수집할 수 없거나 다른 레포지토리에서 유지될 수 없는 온라인 학술자원

(4) 물리적 미디어로 된 전자자원을 위한 선정 기준 :

- 연구 가치가 있거나 독특한 정보를 담은 것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바. National Agricultural Library[7)]

미국 국립농학도서관(NAL)의 디지털 장서개발정책은 전체장서개발정책의 부록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소개 : 연구 보고서, 새로운 과학적 발견, 잠재적 역사 가치의 정보, USDA의 연구를 보조하는 정보, 교육과 원칙적인 목적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의 전자적 포맷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2) 정의 : Electronic resources/ Bibliographic files/ Full text, numeric, graphic files/ Instructional or modelling software/ Applications software에 대한 용어 정의

(3) 선정 :

- 정확성, 적용 범위의 깊이, 객관성, 권위, 최신성(업데이트 주기) 등을 고려한다.
- 인정된 저자, 출판사, 협회, 정부 기관의 저작
- 접근성, 유용성, 적절한 기능성을 나타내야 한다.
- 고객 지원 충분한 trial, 라이선스, 벤더의 신빙성과 사업 기록

(4) 실행 : 전자자원에 대한 접근과, 복본, 폐기와 유지 등 정책 이행 관련 사항을 명시한다.

사. Internet Public Library[8)]

1995년 미시건대학 주도로 설립된 인터넷공공도서관인 IPL의 장서개발정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IPL의 역할

(2) 정책의 목적

(3) 선정에 대한 정의

(4) 선정의 목적

(5) 일반적 원칙 : 이용자 집단과 언어 등에 관한 명시

(6)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 : 내용과 기능, 저작권 등에 관한 명시

(7) 주요 주제 분야에서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

---

7)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of NAL, 〈http://www.nal.usda.gov/about/policy/coll_dev_add2.shtml〉 [cited 2009. 5. 3].

8) IPL Collection Policy, 〈http://www.ipl.org/div/about/colpol.html〉 [cited 2009. 6. 10].

www.kci.go.kr

Arts & Humanities/ Business/ Computers/ Education/ Entertainment/ Health/ Government/ Regional/ Science & Tech/ Social Science/ Ready Reference/ Magazines/ Newspapers/ KidSpace/ TeenSpace/ Literary Criticism/ Blogs/ Associations on the Net/ Native American Authors/ POTUS(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의 주제분야 각각에 대한 기준 명시

(8) 링크 점검 : 링크를 점검하는 방법에 대한 명기

(9) 이용자의 제안 : 새로운 사이트를 추가하는데 있어서 이용자의 제안을 평가하는 방법과 제안을 하는 방법에 대한 명시

Ⅲ. 장서의 수집대상과 범위 분석

1. 이용자 커뮤니티

장서개발정책을 입안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은 서비스 대상 커뮤니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국가단위 디지털도서관의 경우 이용자를 한정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포괄적 이용자 집단을 서비스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컬렉션 단위에서는 장서수집의 수준에 따라 이를 유형별, 계층별로 구분하여 접근하도록 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자료의 수준에 따라 이용자를 구별하여야 할 경우,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KORMARC과 MARC21에서의 이용자 정의를 활용하여 이용범위를 규정할 수 있다.

〈표 1〉 KORMARC과 MARC21에서의 이용자 정의

KORMARC 22 이용대상자 수준	MARC21 22 - Target audience	제안(예시)
␢ 일반이용자용	# - Unknown or not specified	A : 모든 이용자 P : 미취학아동 E : 초등학생 M : 중학생 H : 고등학생 G : 성인 D : 장애인 S : 노년층
a 취학전 아동	a - Preschool	
b 초등학생	b - Primary	
c 중학생	c - Pre-adolescent	
d 고등학생	d - Adolescent	
e 성인용	e - Adult	
f 특수계층	f - Specialized	
j 아동용	g - General	
z 미상 또는 세분하지 않는 경우	j - Juvenile	
| 부호화하지 않음	| - No attempt to code	

www.kci.go.kr

2. 디지털 포맷의 유형

도서관의 수집 대상이 되는 자료의 범위를 검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예컨대, 자료의 유형, 주제 분야, 발간 매체 형식, 사용 언어, 발행 국가 등이 이러한 기준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전자 환경을 반영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발간 매체의 경우 과거 도서관이 종이매체를 중심으로 자원을 개발하던 시기에는 종이매체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기타 매체 유형을 고려하였으나, 최근 컴퓨터 및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발간 매체가 급속히 전자화됨과 동시에 복합매체(multi-media)화됨에 따라 점차 CDP의 구성요소로서 중요성이 약해지고 있다. 또한 구독 및 입수를 위한 도입 가격 체계의 경우, 정보자원의 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지수(CPI)를 훨씬 능가하고 구입/구독조건 또한 점차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됨에 따라 CDP에서 전략적인 고려사항 등을 명문화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9]

음성 카세트테이프가 등장한 이래 비디오카세트, CD-ROM, DVD, 게임 등의 연이은 등장은 도서관의 장서개발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정보검색 부문에서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인터넷의 등장으로 다양한 유형의 정보 매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국가 단위 디지털 정보 유통기관은 모든 디지털 매체의 수집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각 정보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디지털 매체 유형(digital format)을 선택하여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NISO(National Information Standard Organization)는 우수한 디지털 장서(good digital collection)의 기준으로 사용성, 접근성, 예상되는 이용자 그룹에 대한 이용 적합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10]

디지털 환경 자체가 성숙한 결과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 정보를 보급하기 위한 제일의 수단이 됨에 따라 정보의 포괄성과 신뢰성(integration and trust)이 디지털 장서 개발의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는 웹 표준과 기술은 이제 이종 정보의 광범위한 통합을 지원하며, 이용자들의 원스톱 정보 이용 요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수많은 가용 정보량은 이용자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의 도서관들은 디지털자원의 수집범주를 〈표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매체는 여러 가지 유형 및 버전(version)이 다를 수 있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일부 변형한 하부 유형(subtype)이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NDIIPP(National Digit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Preservation Program)의 디지털 포맷[11]에 따라 문자, 그림, 음성, 동영상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

9) 2004 Information Format Trends: OCLC Library & Information Center Report, 〈http://www5.oclc.org/downloads/community/2004infotrends_content.pdf〉 [cited 2009. 3. 30].

10) NISO, *A Framework of Guidance for Building Good Digital Collection*, 2nd Ed. (Baltimore, MD : NISO, 2004).

11) Sustainability of Digital Formats, 〈http://www.digitalpreservation.gov/formats/〉 [cited 2009. 6. 30].

www.kci.go.kr

〈표 2〉 사례별 수집범주

사 례	수집 범주
British Library	- 납본을 통해 디지털화한 자료, 자관의 장서를 디지털화한 자료, 전자저널, 지도 데이터, 음악 CD와 기타 사운드 아이템, 웹아카이빙 자원
Library of Congress	- 웹사이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 전자책, 전자 통합 자원, CD-ROM과 DVD-ROM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 물리적 포맷 전자자원, 온라인 자원, 디지털화한 자원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 전자저널, 논문, 보고서, 기사,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장서, 이미지와 동영상, 사운드 자원, 쌍방향 자원
National Agricultural Library	- 서지 파일, 전문/수치/그래픽 파일, 교육용 또는 모델링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3. 디지털 매체의 선정 기준

가. 디지털 컬렉션 구축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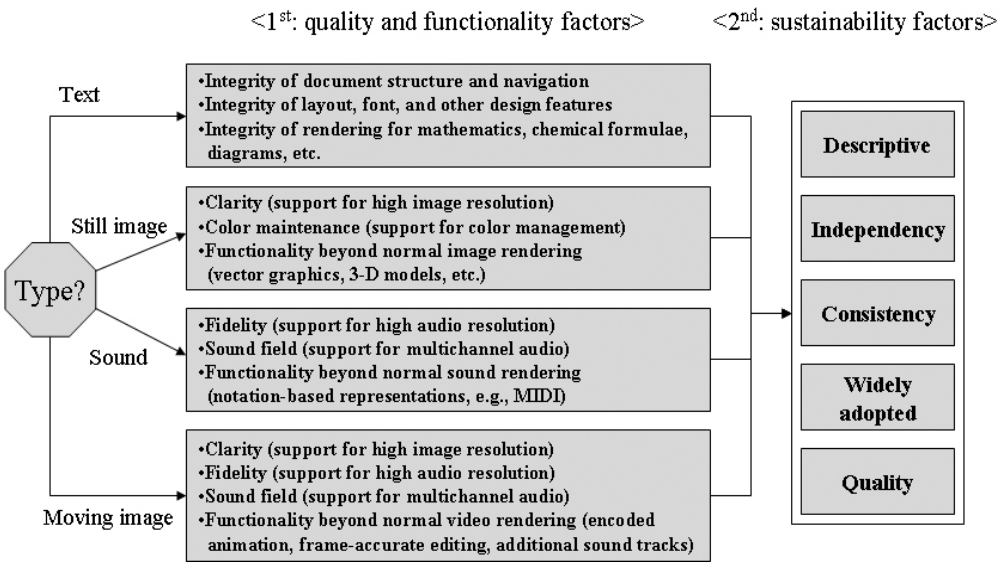
NISO에서 발간한 디지털 컬렉션 구축 지침 프레임워크 보고서에 따르면 좋은 디지털 컬렉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원칙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 디지털화 전에 합의되고 문서화된 분명한 컬렉션개발 지침에 따라 만들어져야 한다.
- 이용자가 범위, 포맷, 접근 제한, 소유권, 컬렉션의 신빙성, 완결성, 해석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 정보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범용적이고 사용상의 제약점이 없어야 하며,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유용성 측정을 위한 이용 정보와 여타 정보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가져야 한다.
- 주요 국가적/ 국제적 디지털 도서관 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매체 유형 선정 기준은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련 사례들을 분석・종합했을 때, NDL의 경우는 5가지 요인(설명성, 독립성, 일관성, 범용성, 품질)을 가지고 디지털 포맷의 선정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12)]

12) 서태설, 장덕현, "도서관을 위한 디지털 포맷 선정 전략 연구," 정보관리연구, 제11권, 제6호(2008. 9), pp.1-21.

www.kci.go.kr



〈그림 1〉 NDL의 디지털 매체 선정 모형

나. 전자자원 유형별 구축 방향

(1) 문자 유형의 전자 자원의 디지털 포맷 구축 방향

문자 유형의 전자 자원으로 전자 저널, 전자 책, 악보, 신문, 간행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책에 선호되는 디지털 포맷으로는 XML과 SGML이라 할 수 있고, 전자 저널의 경우는 PDF라고 할 수 있다.

(2) 그림 유형의 전자 자원의 디지털 포맷 구축 방향

그림 유형의 전자 자원으로 지도와 사진이 있다. 사진에 선호되는 디지털 포맷은 TIFF 계열의 파일 포맷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고, 지도의 경우는 TIFF_UNC와 PDF/A, PDF/X 등이 선호된다.

(3) 음성 유형 전자 자원의 디지털 포맷 구축 방향

음성 유형의 전자 자원으로 음성 자원과 구전 역사 등이 있다. 음성 유형의 경우는 원하는 음질의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디지털 포맷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동영상 유형 전자 자원의 디지털 포맷 구축 방향

동영상 유형도 음성 유형의 경우처럼 음질 및 화질의 수준에 따라서 동영상 유형 설명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 포맷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www.kci.go.kr

Ⅳ. 장서수집 수준 정의

1. 컨스펙터스

국가단위 디지털 장서개발의 수집 수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디지털 장서개발에 적합한 컨스펙터스를 제안하였다. 컨스펙터스는 도서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서, 향후 장서구성에 대한 의지, 앞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장서의 강도를 평가하고 기술해주는 도구이다. 연구를 위하여 기존의 Conspectus 개념을 일별하고 컨스펙터스 수정에 관한 연구들을 리뷰한 결과 대부분 기존의 WLN Conspectus의 장서수준기호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디지털자원만을 위한 새로운 기호는 개발되지 않고 있다.

디지털 장서개발을 위한 컨스펙터스의 특징은, ① CD-ROM 등과 같은 소장될 수 있는 전자자원에 대한 수집범위를 언급한 점, ② 링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전자자원에 대한 수집범위를 언급한 점으로 나눌 수 있다. 주제분야에 따라(예 : 음악, 미술 등) 문자로 된 자료보다 이미지, 음향 등의 자료가 더 적합하고 많을 경우 이에 대한 언급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링크를 통해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자원은 도서관의 장서로 포함하여 장서수준을 결정하라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13] 일반적으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세 종류의 컨스펙터스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잘 규정하고 있다.

〈표 3〉 컨스펙터스 장서수준기호

RLG		WLN		PNWCP	
0	수집 범위에서 벗어나는 주제분야의 장서	0	도서관 자료수집 범위에서 벗어나는 주제분야의 장서	1. 주제별 단행본 수	
1	최소수준	1	최소수준	1a	수집하지 않는 단행본 수
		1a	불균형적 최소수준	1b	2,500종 미만
		1b	균형적 최소수준	2a	2,500 ~ 5,000종
2	기본정보수준	2	기본정보수준	2b	5,000 ~ 8,000종
		2a	입문단계의 기본정보수준	3a	8,000 ~ 12,000종
		2b	고급단계의 기본정보수준	3b	12,000종 이상
3	학습및 교육지원 수준	3	학습및 교육지원 수준	2. 표준 주제서지에 포함된 자료의 소장 비율	
		3a	초급 학습 및 교육지원 수준	1b	5% 또는 이하
		3b	중급 학습 및 교육지원 수준	2a	10% 이하
		3c	고급 학습 및 교육지원 수준	2b	15% 이하
4	연구수준	4	연구수준	3a	15 ~ 20%
5	망라적 수준	5	망라적 수준	3c	30 ~ 40%
				4	75 ~ 80%

13) 장덕현, "전자자원 선정을 위한 컨스펙터스 수정모형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0권 제2호(2009. 6), pp.31-44.

www.kci.go.kr

2. 컨스펙터스 수정

국가단위 디지털도서관의 디지털장서개발을 위하여 컨스펙터스를 사용할 경우 디지털장서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14]해야 하는데 학자들에 의하여 수정된 사례는 Johnson,[15] Clayton & Gorman[16]의 연구를 비롯하여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한 전자자원도 자관의 장서로 인정한 Biblaz[17]의 연구와 장서의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Burke[18]의 연구 그리고 장서의 유지수준(Persistence Levels)을 함께 고려한 Maria & Koichi & Shigeo[19]의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SunSITE Collection and Preservation Policy 에서도 전자자원의 이용이 어떠한 수준에서 유지되느냐를 고려하여 'Archived', 'Served', 'Mirrored', 'Linked'의 4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료의 가치에 따라 자료의 유지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20]

전자자원의 수집을 위한 컨스펙터스 모형은 기본적인 컨스펙터스의 개념인 장서수준뿐만 아니라 자료의 유형별로 어떤 강도로 장서를 유지 및 서비스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디지털 유형으로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되어야 할 자료의 비중이 높은 NDL의 경우 장서의 수준과 장서유지 수준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컨스펙터스 모형은 기본적인 컨스펙터스의 개념인 장서수준뿐만 아니라 자료의 유형별로 어떤 강도로 장서를 유지 및 서비스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장서수준(Collection Levels)은 보다 상세하며 전자자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온 WLN 컨스펙터스 장서수준기호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유지수준(Persistence Levels)에 관하여 Calang 등은 디지털 정보원의 유지수준을 De-accessioned, Finding Aids, Linked, Brokered, Mirrored, Served, Archived의 7단계 수준[21] 구분한 바 있는데, 이 두 개념을 적용하여 만든 matrix를 기본 골격으로 장서수준과 유지수준에 대한 장서유형별 적용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

14) 상게서.

15) Peggy Johnson, *Fundamentals of Collection Development & Management* (Chicago : ALA, 2004), p.277.

16) Clayton, Peter, and G. E. Gorman, "Updating Conspectus for a Digital Age," *Library Collections, Acquisitions & Technical Services*, Vol.26, No.3(July 2002), pp.253-258.

17) Dora Biblaz, "Guidelines For 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Using The Conspectus Model,"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Section on Acquisition and Collection Development* 〈http://archive.ifla.org/VII/s14/nd1/gcdp-e.pdf〉 [cited 2009. 3. 5].

18) Jess Burke, "Renovating Conspectus for the Digital Era: Applied at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Australian Libraries Gateway(ALG): Embracing Electronic Access*, NLA. 〈http://www.nla.gov.au/libraries/hosted/embracin.html〉 [cited 2009. 8. 30].

19) Maria Luisa Calang, Koichi Tabata and Shigeo Sugimoto, "Linking Collection Management Policy to Metadata for Preservation - a Guidance Model to Define Metadata Description Levels in Digital Archives,"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ublin Core and Metadata for e-Communication*, 2002. 〈http://dublincore.org/workshops/dc10/DC-2002-brochre.pdf〉 [cited 2009. 8. 30].

20) Digital Library SunSITE Collection and Preservation Policy, 〈http://sunsite.berkeley.edu/Admin/collection.html〉 [cited 2009. 8. 30].

21) Calang, *op. cit.*.

www.kci.go.kr

Ⅴ. 디지털장서개발정책 구성요소

1. 구성요소 도출

가. 사례 선정

디지털 장서와 전자자원 개발 정책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 4〉에 제시된 사례와 관련연구들을 통해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표 4〉 구성요소 도출 대상

구 분	대 상
가이드라인	ALA(Reference and User Services Association) Core Elements of Electronic Resource Collection Policies
장서개발정책	Library of Congress : Collections policy statements 〉 Selection Guidelines for Electronic Resources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 Australian Electronic Resources
	National Science Digital Library : NSDL Collection Policy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 Collection Development Manual 〉 Electronic Resources
	National Agricultural Library :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of NAL 〉 Electronic Resources Selection Policy
	Internet Public Library : IPL Collection Policy
관련 연구	Samuel Demas, Peter McDonald, Gregory Lawrence. The Internet and Collection Development(1996)
	Gary W. White and Gregory A. Crawford. Developing an electronic information resources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1997)
	Peggy Johnson. Fundamentals of collection development and management(2004)
	Peggy Johnson.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and Electronic Information Resources(1997)
	Louis A. Pitschmann. Building Sustainable Collections of Free Third-Party Web Resources(2001)

나. 사례별 구성요소 도출

위의 사례와 연구들이 제시한 전자자원개발정책의 기본요소들을 참고하여 디지털장서개발정책의 구성요소를 종합해보면 〈표 5〉와 같다.

www.kci.go.kr

〈표 5〉 구성요소 종합

요 소		기 관							학 자			
		ALA	LC	NLA	NSDL	NLM	NAL	IPL	Demas	White	Johnson	Pitschmann
개요	소개		○		○	○	○	○	○			
	목적				○			○				
	용어 정의	○	○	○		○	○	○	○			
	개정 계획	○										
	다른 정책/ 자원과의 관계	○		○							○	○
	이용자 커뮤니티 정의	○			○			○			○	
	업무의 책임사항	○			○		○					
	수집범주	○	○	○	○	○	○		○			
선정 시 고려 사항	언어							○				
	주제			○	○			○				
	내용		○	○		○	○	○		○		○
	기능성		○				○	○		○	○	○
	포맷		○	○						○	○	
	이용자 요구									○	○	
	출판사, 벤더, 저자의 권위		○				○	○				○
	비용									○	○	
	선정도구								○			
	수집수준								○			
	복본						○			○		
	접근		○				○		○			
	기술적 문제	○								○	○	○
	유지와 갱신								○			
행정적 이슈	예산	○										
	저작권		○					○				○
	라이선스										○	
	벤더						○				○	
	교육										○	
	수집요청 절차							○		○		

2. 디지털장서개발정책 기본 구성요소

〈표 5〉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문헌정보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중요도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조사대상은 국내 문헌정보학과에서 장서개발 분야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자들과 국내 주요 도서관의 장서개발담당 사서로 한정하였다. 전문가 구성을 위하여, 전국 4년제 대학의 32개 문헌정보학과를 대상으로 장서개발 담당 교수를 선정하였다으며, 전국 주요 대학 도서관에서 전자자원 개발 또는 장서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을 선정하였다.

우선 한국 학술진흥재단 연구자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전공분야가 정보자원(장서개발)인 대학 교수 11명, 그리고 장서개발 분야 저자 5명을 선정하였다. 이어서 한국도서관연감을 근거로 규모순 상위 16개의 도서관을 선정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조직도와 업무분장을 참고하여 전자자원 개발

www.kci.go.kr

또는 장서개발 담당 주무 사서 16명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전문가 32명에게 설문을 시도하였다. 최종 회수율은 100%였다.

가. 연구절차

본 연구는 2차에 걸친 델파이 방법을 통해 실시되었고 조사기간은 2007년 10월 22일에서 2007년 11월 26일까지이다. 각 라운드의 설문지 제작과정에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를 통하여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를 검증받았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은 전화를 통한 사전 동의 후 웹 설문을 통해 행해졌다.

(1) 제 1차 델파이 조사

제 1차 설문지는 관련분야 교수 3명과 문헌정보학 전공 대학원생 2명에 의해 검토 받았고 검토결과에 따라 수정, 보완되었다. 배포와 회수는 2007년 10월 22일부터 2007년 11월 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32명의 전문가에게 배포하여 모두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앞서 도출한 디지털장서개발정책의 예비 구성요소 각각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매우 필요하지 않다"의 Likert식 5단계 척도로 평가하도록 구성하였다. 설문의 편의를 위해 28개의 구성요소를 '개요', '선정 시 고려사항', '행정적 이슈'의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2) 제 2차 델파이 조사

제 2차 설문지는 2007년 11월 2일부터 2007년 11월 6일 동안에 작성되었다. 작성된 설문지는 다시 관련분야 교수 1명과 문헌정보학 전공 대학원생 3명에 의해 검토 받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이 수정・보완되었다. 배포와 회수는 2007년 11월 7일부터 2007년 11월 26일까지 이루어졌으며 1차 조사에 참여한 32명의 전문가에게 배포하여 모두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제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부 항목을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37문항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매우 필요하지 않다"의 Likert식 5단계 척도로 평가하도록 구성하였다. 설문지에는 제 1차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평정했던 값뿐만 아니라 중앙값과 사분범위를 제시하여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자료 분석방법

설문지는 기술통계와 내용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통계 처리를 위해 SPSSWIN 15.0을 사용하였다.

제 1차 조사에서는 연구자가 도출한 28개의 요소에 대한 중요도 조사가 이루어져 각 항목의 중앙

www.kci.go.kr

값과 사분범위, 평균과 표준편차, 각 영역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28개 항목 전체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평균(mean)과 중앙값(median)은 집중경향치[22]를 사분범위(interquartile range)는 변산도를 나타낸다. 평균은 가장 일반적인 집중경향치로서 최빈치나 중앙값에 비해 모든 점수들이 가장 충실하게 반영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극단치에 민감한 것이 약점이 되기도 한다. 중앙값은 한 분포 안에 포함된 전체 사례를 이등분하는 점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극단치가 있는 분포에서 그 영향을 배제하고 조금 더 정확한 대표적 경향을 파악할 때에 중앙값을 사용한다. 따라서 연구논문에서 편포된 집중경향에 관해서 보고할 때에는 평균과 중앙값을 모두 밝히는 것이 좋다. 이 두 집중경향치는 한 분포의 집중경향치를 말해 줄 뿐만 아니라,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를 알면 그 편포의 정도와 방향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23] 사분범위는 응답자의 반응을 크기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25% 위치의 점수와 75% 위치 사이의 점수를 의미한다.

또한 개방형 문항에 대해서는 내용분석이 이루어졌다. 비슷한 내용을 통합하고 새로운 내용을 정리하여 만든 문항의 빈도수를 산출하였다. 여기서 내용분석이란 연구자가 연구하려고 하는 문서의 내용을 가능한 정확하게 정의하고, 적절한 범주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법이다.[24] 내용분석은 크게 세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분석 목적에 적합하게 범주화(Categorization)하고, 분석단위(Analysis unit)를 결정하며, 수량화(Qualification)하는 것이다.[25] 2라운드 설문지 작성을 위해 각 영역에 추가해야 될 요소의 빈도수 산출과 함께 각 문항에 추천된 용어를 정리하였다.

제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수정·보완한 28개의 요소에 대한 중요도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순위를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항목 전체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각 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각 항목의 중앙값과 사분범위 그리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전체 조사 과정에서 평균이 3.0 이상인 항목만을 디지털장서개발정책의 요소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항의 표준편차는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다. 조사결과

(1) 조사 결과

연구자가 도출한 예비 구성요소에 대해 Likert식 5단계 척도로 제시하였으며, 회수율은 100%이다. "매우 중요하다"를 5점, "중요하다"를 4점, "보통이다"를 3점, "중요하지 않다"를 2점, "매우 중요하지 않다"를 1점으로 했을 때 전체의 평균은 4.01점이었고 표준편차는 0.84점이었다. 이를 영역별 점수와 함께 나타내면 〈표 6〉과 같다.

---

22) 한 집단의 대표값을 종합·요약함으로써 그 특성을 대표하는 전체적 경향을 밝혀주는 통계적 수치.

23) 김영석, 사회조사방법론 SPSS WIN 통계분석(서울 : 나남출판, 2005), pp.223-226.

24) 이현실, "델파이 조사를 이용한 정보활용능력 교육 항목 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1호(2004. 3), pp.303-322.

25) 김병성, 교육연구방법(서울 : 학지사, 1997), p.290.

www.kci.go.kr

〈표 6〉 델파이 조사 결과

영 역	요소 수	평 균	표준편차
개 요	8	3.97	0.72
선정 시 고려사항	14	4.15	0.67
행정 사항	6	4.27	0.70
전 체	28	4.13	0.70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요소는 '개요' 영역의 '수집대상의 범주'로 평균 4.8점이었고 다음으로 '저작권,' 이어서 '내용'과 '수집수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요소는 '개요' 영역의 '개정계획'으로 평균 3.2점이었다. 제 2차 조사에서 평균 3.0 이하의 점수를 얻은 문항이 없어, 디지털장서개발정책 구성요소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28개의 문항 각각에 대한 중앙값과 사분범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7〉과 같다.

〈표 7〉 구성요소 중요도

번 호	영 역	구 성 요 소	평 균	순 위
1	개 요	소개	3.9	18
2		목적	4.7	2
3		용어 정의	3.8	20
4		개정 계획	3.2	28
5		다른 정책 및 자원과의 관계	3.4	25
6		이용자 커뮤니티 정의	4.1	13
7		업무의 책임사항	4.2	9
8		수집대상의 범주	4.8	1
9	선정 시 고려사항	언어	3.5	23
10		주제	4.2	9
11		내용	4.5	4
12		기능성	4.2	9
13		포맷	3.7	21
14		이용자 요구	4.2	9
15		출판사와 벤더, 저자의 권위	4.3	7
16		비용	4.0	15
17		선정도구	3.5	23
18		수집수준	4.5	4
19		복본	3.4	25
20		접근	4.3	7
21		기술적 문제	4.1	13
22		유지와 갱신	4.0	15
23	행정적 이슈	예산	3.7	21
24		저작권	4.7	2
25		라이선스	4.4	6
26		벤더	3.3	27
27		교육	4.0	15
28		수집요청 절차	3.9	18

www.kci.go.kr

(2) 논의

최종적으로 도출된 구성요소의 1순위는 '수집대상의 범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단위 디지털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수집의 대상이 되는 정보원의 유형과 범주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순위는 '저작권'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도서관계와 관련 학계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내용과 수집의 수준 또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 디지털 시대에 다양한 포맷이 존재하더라도 자원이 담고 있는 정보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위에 제시된 디지털장서개발정책의 구성요소는 각 도서관의 목적과 특성, 그리고 규모에 부합하는 요소를 추출하고 순서를 재배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도출된 순위는 국가단위 디지털도서관의 디지털장서개발정책 수립을 사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단위 도서관에서는 자관의 실정에 맞도록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구성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Ⅵ.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국가단위 디지털도서관을 사례로 디지털장서개발 정책의 기본 요건들을 도출하고 그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디지털장서개발정책에 있어서는 수집대상이 되는 정보자원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대상 자원의 범주 설정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다. 즉,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전자자원 가운데 어떤 포맷을 구매할 지에 대한 결정을 돕고 매체의 수명, 자원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장비, 기술적 지원의 이용 가능성과 같은 전통적인 선정과는 다른 특징들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부가적인 지시를 제공한다. 즉, 수집대상이 되는 전자자원의 유형과 제외되는 전자자원의 유형을 규정하는 것 뿐 아니라 보통 복본을 줄이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가지 포맷으로 구매할지 그렇지 않은 경우 보존 목적으로 다양한 포맷을 구매하여야 하는지 등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장서개발정책은 무엇보다 기관의 요구와 목적을 반영하며 도서관 사명을 구현하여야 한다. 또한 장서개발정책이 타당성을 유지하고 도서관과 이용자의 변화하는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 보완되어야 한다. 더욱이 전자형태의 정보자원이 급속히 증가하여 인쇄위주의 실물장서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도서관 현실을 고려할 때 디지털장서개발정책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절실하다.

다만 아직 실물장서 위주의 장서개발정책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국립디지털도서관의 개관을 계기로 디지털 장서개발정책 외에 국립중앙도서관의 다른 정책과

www.kci.go.kr

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인쇄자원 및 주제별 장서개발정책과의 관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각종 정보자원의 선정에 관한 기준과 권위, 선정도구, 자원의 수집수준, 지속적인 검토를 통한 유지 결정, 폐기, 제적, 갱신, 구독 취소 등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명문화한 표준화된 장서개발정책 구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급의 도서관에서 수준 높은 장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www.kci.go.kr

www.kci.go.kr